

만화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대만은 자국의 「環境保全」에 대한 정책을 「行政院環境保護署」(우리 나라의 환경청에 해당) 가 담당하고 있다.

다음의 「環保漫畫手冊」은 同國의 環境保護署가 발행한 것을 게재 한다. 〈편집자 註〉



쓰레기를 분류합니다.

대만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서 육지의 가용면적은 대단히 제한되는데 게다가 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더욱 많은 토지면적을 점유했으나 사람들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가 쌓여서 차지하는 면적 즉 「쓰레기장」은 더럽고 냄새가 날 뿐만이 아니라 매우 비경제적이라서 사용할만한 토지를 낭비하고 있는 셉입니다.

그러므로 대만의 현, 시, 향, 진(대만의 행정 구역 단위임. 우리나라의 시, 군, 읍과 동일)은 매일 매일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골치를 앓고 있읍니다. 즉 정부는 쓰레기장으로 쓰일 곳을 찾기 위해 큰 비용을 들여서 겨우 쓰레기장으로 쓰일 장소를 찾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근처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가두시위를 하며 모두들 불만하는 문제에 부딪혔읍니다.

쓰레기장이 이렇게 곤란을 겪게 되자 정부는 할 수 없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화 덕」을 설치할 수 밖에 없읍니다. 쓰레기장을 소각

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최고로 진보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비료 혹은 기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 보다 훨씬 더 위생적이며, 광대한 토지면적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화덕이 고장나지만 않는다면 정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쓰레기장처럼 쓰레기가 쌓여서 산을 이루어 사용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 화덕의 장점이 비록 많기는 하지만 서로가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효과를 낸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의 사용효과에 영향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쓰레기 소각 화덕의 고장을 면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분류하여 태울 것을 권장하고, 분류상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모두들 쓰레기를 버릴 때에 분리를 하여 봉지에 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쓰레기를 분류해야 하는 근본 원인이며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하여 그 일에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